

CONTENTS

- 2면 2014낙산배 품평회 대상 이해우 씨
- 3면 오색 삭도 '오색~끝청' 최적 노선 꼽혀
- 4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 1일 취항
- 5면 "낙산·하조대 중장기 집중 투자 계획"
- 6면 "양양송이축제 다채롭고 재미나네요"
- 7면 상수도사업소-송천떡마을 자매결연
- 8면 결혼이민여성들 전통음식 만들어 전달
- 9면 오산리선사유적 7천년 전 '쌀' 흔적 발견
- 10면 "불합리한 규제 신고 받습니다"
- 11면 게시판
- 12면 알아두면 좋아요

· 발행일 : 2014. 10. 31(금) · 발행인 : 양양군수 · 편집인 :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033)670-2223 / Fax(033)670-2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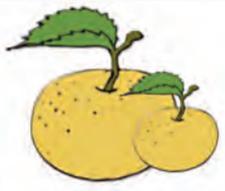
낙엽도 떨어져 뒹구는 오색가을이 아름답다

낙엽도 떨어져 뒹구는
오색가을이 아름답다

송이와 연어축제를 끝내고 난
양양의 가을은 오색단풍으로
곱게 물들여진다.

굽이굽이 흐르는 남대천 연어는
새 생명을 잉태하며 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활력을 불어넣는다.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오색단풍은
등산객들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바스락거리며 양양의 멋을 뽐낸다.



2014낙산배 품평회 대상 이해우 씨

“크고 당도 높아”...40년간 과수 재배한 여장부

40년간 과수원을 운영하며 낙산배 재배에 구슬땀을 흘려온 이해우(63, 사진)씨가 2014낙산배 품평회에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서면 용천리에서 과수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올해 이상기온과 일조량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튼실하고 육질이 좋은 명품 낙산배를 생산해 지역 최고의 과수 농부 자리에 올랐다.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한 올해 낙산배 품평회에서 이 씨가 출품한 ‘원황’은 아이 머리만할 정도로 크고 당도도 높아 최고 명품으로 평가받았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키우기 위해 과수농원을 시작한 후 이렇게

큰 상을 받아 감개가 무량해요. 우리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온갖 정성을 들였는데, 잘 자란 것 같네요.”

40년간 여성의 몸으로 과수원을 일구며 명품 낙산배를 재배한 그는 서면 용천리 복숭아 마을의 브랜드도 함께 높이고 있다.

23살 때 결혼한 이 씨는 넉넉지는 않았지만 오순도순 살다 동갑내기 남편이 36살에 세상을 등지자, 시아버지와 함께 과수농사를 지으며 1남2녀를 키웠다. 시아버지도 2년 뒤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과 홀로 남은 그는 혼자 과수농사를 지으며 억척같은 삶을 살아와 동네에서도 여장부로 칭송이 자자하다.



지난 겨울부터 가을 수확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이슬을 맞아가며 낙산배 재배에 구슬땀을 흘린 그는 낙산배를 비롯해 재배하는 과수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 한우 2마리를 키워 배설물을 거름으로 쓰는 등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오고 있다.

“올해 용천 복숭아에 이어 낙산배도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 주민들 모두 양양 과수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팔려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 씨는 지난 1일 양양송이축제장에서 김진하 군수로부터 낙산배 대상 표창을 받았다.



양양자전거아카데미 발전추진위 발족

김근우 초대 위원장...“자전거 캠핑장 조성 계획”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로 관광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 양양자전거아카데미 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양자전거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동호인클럽을 조직해 자전거캠핑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자전거레저스포츠 발전과 자전거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손양면 상운리가 고향인 그는 지난 1962년 양양고 사이클 창단선수로 첫 인연을 맺은 뒤 양양고 사이클 감독, 한체대 사이클 지도교수,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행정 담당관을 맡는 등 한국사이클의 산증인이다. 최근에는 모교인 상운폐교를 자전거 캠핑장으로 활용하는 공익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8일 발족한 양양자전거아카데미 발전추진위원회는 이날 초대 위원장에 양양출신으로 한국사이클 발전에 기여해온 김근우 전 한체대 교수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최고의 사이클 고장인 우리군에서부터 올바른 자전거문화를 이해하고 자전거 타기의 생활화로 지구촌의 환경위

“양양시장에 특별한 색깔 입혀야죠”

허승영 양양전통시장 육성사업단장

“영북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양양시장의 전통을 현대에 맞도록 특별한 색깔을 입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육성 양양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허승영(43, 사진) 단장은 양양시장이 최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힘입어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색깔을 입혀 차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허 단장은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양시장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

휘할 수 있도록 1년차인 올해는 다양한 테마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힘을 보태고, 내년에는 난전 정비 등 총체적인 밑그림을 완성한 뒤 마지막 3년차에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양양전통시장을 전국에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현재 양양전통시장은 오랜 역사에 비해 상인들의 경쟁력이 낮아 판매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판매방식을 개선하고 각종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외형적인 사업추진과 더불어 내실을 기하는데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색 삭도 '오색~끝청' 최적 노선 꼽혀

노선 선정 주민공청회 열려...군·케이블카추진위 협의 결정

우리군의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은 지난달 30일 '설악산 오색삭도' 노선 선정을 위한 지역 주민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공청회는 김진하 군수와 최홍규 의장, 안석현 양양군케이블카추진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호열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의 추진상황 및 노선설명, 케이블카 선진지인 호주 케언즈와 통영 케이블카 동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군은 이날 공청회에서 ▲오색~끝청(1안) ▲오색~등선대(2안) ▲오색~대청봉 인근(3안) 등 3개 노선을 제시했다. 최종 노선은 주봉인 대청봉과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정상통제 방안 및 복구계획수립, 멸종위기종 및 보호식생 서식지 최대 회피,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친환경 공법 시

공, 비상시 대피로 확보 등 5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안인 오색~끝청은 멸종위기종 등 특이 동·식생 일부가 서식하지만 공사 시 자연훼손이 적고 안전한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대청봉과 점봉산, 서북능선, 동해안 등 조망이 양호한데다, 환경부의 삭도설치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최적의 노선으로 평가받았다.

군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한 뒤 양양군케이블카추진위원회와의 최종 협의를 통해 대안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3~5월경 환경부에 세 번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제6회 설악권 장애인체육대회 성료

우리군 4개 부문 1위로 종합우승 차지



지난 15일 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설악권 4개 시·군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게이트볼과 론볼, 파크

골프, 보치아 등 4개 종목에서 우승한 우리군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경기침체 낙산지역 정상화 방안 강구해야”

우리군의회 군정질문...“공직사회 맞춤형 의식교육 필요”



우리군의회(의장 최홍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제201회 정례회를 열고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벌였다.

이영자 부의장은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내용을 공무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현안사업 브리핑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친절한 민원응대, 누구나 홍보대사, 양성평등 모범도시, 성희롱 없는 직장 등 맞춤형 의식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용 의원은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고속화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유치 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해 총체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한석 의원은 “낙산지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양양경제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낙산비치호텔과 프레아 낙산콘도 정상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새로운 축제개발을 비롯해 낙산도립공원 내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한 해제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제철 의원은 “대기업인 롯데

가 속초 외옹치 인근에 대형복합리조트를 오는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며 “우리군은 관광객 유치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중 의원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들이 10년 넘게 미집행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군유지 자투리땅 매각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종호 의원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에 김포공항의 훈련용 소형항공기 일부를 분산 배치하는 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생계문제 등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타 공항으로 변경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위원회를 열고 고문번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 1일 취항

국내 타 공항 대비 20~39만원 저렴...내년 1월까지 운항

지난 1일부터 양양국제공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간의 전세기가 본격 취항한 가운데 이 노선의 항공료가 국내 타 공항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향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와 (주)투어러시아(대표 최세형)가 공개한 러시아 노선의 왕복 항공료는 양양공항~블라디보스톡이 34만4,000원, 양양공항~하바롭스크가 44만원이며, 양양~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양양 공항은 38만4,000원으로 국내 타 공항과 비교해 블라디보스톡은 20만원, 하바롭스크는 39만원 가량



저렴하다.

단체 여행상품은 양양공항~블라디보스톡이 3박4일간 79만9,000원, 양양공항~하바롭스크 4박5일이 89만9,000원으로 항공료와 호텔, 차량, 가이드, 식사, 시베리아

횡단열차 티켓이 포함된다. 개별 여행상품은 가이드와 식사비를 제외하고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 시베리아횡단열차 코스(3박4일)가 49만9,000원, 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횡단열차 코스

(4박5일)가 59만9,000원이다.

블라디보스톡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20분 양양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각 오후 6시50분에 도착하며, 하바롭스크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20분 양양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각 오후 6시35분에 도착한다. 비행시간은 블라디보스톡이 1시간30분, 하바롭스크가 2시간35분 소요된다. 러시아노선은 내년 1월31일까지 운항될 예정인 가운데 도는 러시아 노선의 활성화를 위해 극동아시아의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 노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러시아투어(02-722-7744)와 강원도(033-633-1441)로 하면 된다.

“양양지구대장, 경정으로 올려주세요”

우리군번영회, 경찰청에 치안조직 강화 청원

우리군번영회(회장 정준화)가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군의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양지구대장 직급을 현 경감에서 경정으로 한 계급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경찰청에 발송했다.

번영회는 지난 7일 청원서에서 “양양군은 설악산과 낙산사, 하조대, 양양국제공항, 양수발전소 등 전국적인 유명 관광지를 비롯해 중요 국가 기간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년 7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치안수요도 그 만큼 늘어나고 있지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공급은 시대흐름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번영회는 “양양군민들은 그동안



넓은 면적과 많은 유동인구, 오지마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양양경찰서 신설을 지

속적으로 요구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양양국제공항이 중국인과 러시아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빌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고 내년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선정과 2016년 동서·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과의 거리가 불과 1시간30분대로 좁혀져 수도권 인구 유입이 가시화 될 것”이라며 “양양지구대장의 계급 조정을 통한 치안조직 강화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청원했다.

우리군여성단체협의회 ‘에코-힐링’ 인기

목재 만들기 등 현장 중심 워크숍 호평



우리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희)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송이밸리에서 여성리더십 향상을 위한 ‘에코-힐링’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워크숍은 각 여성단체별로 입소 기수를 정해 오전에 명상과 차 만들기, 오후에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각종 목재 만들기를 비롯해 숲길 걷기, 짚-라인 타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 위주로 진행됐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동안 강의 중심으로 이뤄지던 워크숍을 현장체험으로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최금희 회장은 “지역여성의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호응도가 컸다”며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낙산·하조대 중장기 집중 투자 계획”

우리군 민선6기 100일, 2015년 창의시책 보고회

민선6기 취임 100일을 맞은 김진하 군수가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창의시책 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에 들어갔다.

우리군은 지난 6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2015년도 창의시책 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150개 신규사업과 80개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축인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분야, 독립공원의 발전방안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 투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침체를 겪고 있는 낙산권역과 투자가치가 높은 하조대 권역에 대한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 대회로 진행되고 있는 동구리 민요경창 대회를 전국대회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양양 8경 중 제1경인 남대천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태환경 중심지 조성, 둔치 일원 수변 문화공간 조성,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 문화축제 전용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젓줄답게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디자인해 나간다는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각 부서별 소관사업에 대해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마무리 및 정상 추진사업, 공약사업(신규사



업), 전략사업, 공모사업 등으로 세분화해 상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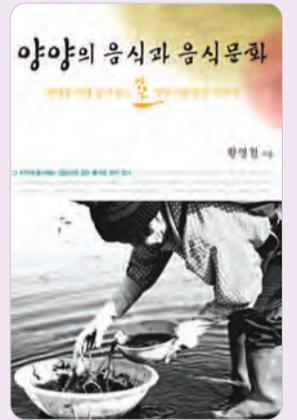
김진하 군수는 “우리군이 현재 처한 지역경제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사업 중요도가 높은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 책자 발간

음식 컬럼니스트 황영철 씨

지역 출신의 음식 컬럼니스트 황영철 강원도외식저널대



표가 양양의 다양한 음식과 역사를 담아낸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라는 음식전문 책자를 펴냈다.

<맛있는 동해안>이라는 음식전문지를 발행해 동해안의 음식을 전국에 알리고 있는 황 대표는 도내 18개 시군의 음식과 맛을 소개하는 첫 책자로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를 발간했다.

총 80쪽의 화보 형태로 구성된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는 양양을 대표하거나 대표할 만한 맛과 음식문화 이야기를 주제로 섭국(홍합), 송이, 은어, 장갈국수, 물회, 짬뽕, 뚜거리탕, 메밀국수, 양양한우 등 15가지를 선정해, 이를 양양사람들의 삶과 전통, 풍습, 음식의 특징과 유래, 역사성을 접목해 재미나고 구수하게 풀어냈다.

특히 활자만이 아닌 먹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관련 사진들을 시원하게 수록했다. 여기에 음식재료와 조리법, 밥상차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팁과 맛 집까지 구체적인 정보도 담았으며,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양양의 맛과 음식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책자로 만들어냈다. 양양음식에 숨어 있는 양양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일자리지원센터 159명 채용 연결

올해 공공부문 85억 투입 2천6백여명에 일자리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가 구인업체와 구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제도시과에 설치된 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 9월까지 204명의 구직신청을 받아 민간부문 일자리에 159명을 채용하도록 했다. 고용형태로는 계약직이 122명(

상용직 37)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은 모두 200만원 미만(100만원 이하 20명)이었다.

군은 이와 함께 올해 공공부문 재정투입 일자리사업으로 경제, 복지, 농정산림, 환경분야 등 93개 사업에 총 85억4,300만원을 투입해 모두 2,661명(상시

1,474명, 일용 1,1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장 일자리 수요가 많은 사업은 노인 일자리로 665명이며, 공공근로 3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00명, 자활근로사업 87명, 숲가꾸기사업이 48명 등이다.

한편, 일자리지원센터는 전문취업상담사가 계층별 전문상담과 사후관리 등 다양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 총력

우리군, 11월1일~12월15일 대책본부 운영

우리군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간다.

군은 가을철 바람이 많이 불고 건

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위험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본청과 각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공조, 가을철 산불방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관내 25개 사회단체 9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산불예방활동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민제도 및 산불의 조기발견을 통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산불진화대 670-2727



“양양송이축제 다채롭고 재미나네요”

“글로벌 체험축제로 진가 발휘”...몸집 줄이고 내실 있게

2014양양송이축제가 예산 축소에 불구하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창의적인 이벤트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글로벌 체험축제로서의 진가를 선사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열린 제18회 양양송이축제는 현장체험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로 축제기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일 오전 10시 산신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양양송이축제는 개막식 등 걸치레 행사를 생략하고 내국인 보물찾기와 외국인 송이채취



현장체험 등 체험위주의 이벤트로 가을추억을 전했다.

특히 외국인 송이채취체험과 송이보물찾기, 버섯채취체험 등 송이 현장체험행사가 인기를 끌었으며,

송이밸리 견학 프로그램은 양양송이와 백두대간 생태교육, 목재문화 체험 등 전문화된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송이요리전문점과 송이밥 시식, 송이차 시음, 송이향이방, 송이주막, 송이버거·샌드위치 만들기 등 송이 맛 체험 행사는 양양송이를 재료로 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인기만점이었다.

송이축제장에서 스탬프 10개를 받아오면 송이축제 에코백을 제공하는 송이스탬프앨리와 가족과 친구, 연인에게 편지를 써 부치는 달팽이 우체국도 잊지 못할 가을추억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송이축제장에서 ‘캐고 먹고 즐긴’ 여운을 블로그에 남기는 블로그 경진대회가 열려 SNS를 통해 송이축제를 전국에 알려 눈길을 끌었다.

“양양연어와 함께 가을을 만끽했어요”

2014양양연어축제, 17~19일 남대천서 다채롭게 열려

“양양연어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어요.”

2014양양연어축제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맨손잡기체험을 비롯해 다채로운 체험이벤트로 특별한 가을추억을 선사했다.

가을의 중턱에 열린 올해 연어축제는 ‘생명의 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쪽빛으로 물드는 남대천을 가족과 함께 거닐며 체험여행의 진가를 맛봤다.

올해도 용왕제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맨손잡기체험을 비롯해 연어뜨기체험, 재첩잡기, 양양연어OX 퀴즈, 자전거 천천히 타기대회, 멸치후리기 등 6개의 현장체험행사가 열려 재미를 전했다.

또 가을연어를 맛 볼 수 있는 연어요리 전문점과 셀프구이 등 맛 체험 행사와 락 밴드 7080공연을 비

롯해 전자현악 걸 그룹 ‘엘리스’, 잉카안데스 전통음악, 여성 걸 그룹, 퍼포댄스 ‘더 믹스’, 통기타 가수 김종수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무대를 마련했다.

상설행사로 연어탁본뜨기, 연어홍보·교육관 운영, 허브활용 체험, 페이스 페인팅, 네일아트, 연어생태교육 및 민물고기 그림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도 흥을 더했다.

이밖에 송이차와 송이향이빵 만들기 체험과 연어포 및 조개 판매장 등을 운영하고, 동호리 멸치후리기와 재첩잡기를 무료로 전환해 축제 활성화의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군은 올해 연어축제장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탈의시설도 개선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 통역원을 배치, 글로벌



축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특히, 양양송이축제가 올해 일몰제로 인해 문화관광축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한 연어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평가용역을 실시, 문화관광축제 진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38선 돌파

사단 창설지 기념행사

육군 8군단 · 102기갑여단



육군 8군단과 102기갑여단이 국군의 최초 38선 돌파와 22·25사단 창설지를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열여 민관군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양양송이축제기간에 맞춰 3일까지는 송이축제장에서 태극기 홍보, 장비소개, 레이저 소화기 체험, 공포탄 사격, 연습용 수류탄 투척 등 체험행사와 K-1전차, K-9 자주포 등 17종의 장비를 전시해 인기를 끌었다.

상수도사업소-송천떡마을 자매결연

농촌사랑 실천 약속...농협 군지부 등 중개

우리군 상수도사업소(소장 차익환)와 서면 송천떡마을(대표 김성완)이 지난 15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사랑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NH농협 양양군지부와 서광농협의 중개로 성사된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노현화 지부장과 박철수 조합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참석해 농촌사랑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은 농촌일손돕기와 농산물 직거래, 마을환경 정화활동 등 다양한 교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차익환 상수도사업소장은 “관내에 있는 마을이지만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농촌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戱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48) 보채던 아가 달래던「아린역사」한 토막

뚜옥
저기
순사가 온다
순사.

어서
어서
뚝 -

일제 강점기의 悲話. 보채던 아가를 달래던 우리 어머니들의 그 음성에서 일제의 강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사」소리에서 울음을 그치었다면 그때 우리 선조님 속앓이의 피눈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나라사

랑」으로 새기게 합니다. 그 바탕에 든든함, 튼튼함, 단단함, 탄탄함의 중요성 몇 번이고 다져야겠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네 경찰관은 다정다감한 벗입니다.

믿음주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 「양양경찰서」 우리 고장에서 다시 그 간판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됩니다.

이에 대해 김성완 송천떡마을 대표는 “도시민들에게 더욱 아늑한 휴식공간과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단풍철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짚라인’ 인기만점

‘짚라인코리아’ 고성 델피노 등 전국 7개소 운영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 설치돼 운영 중인 ‘짚라인’이 최근 가을단풍철을 맞아 관광객들로부터 특별한 체험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5월 성공적인 시범운영에 이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 양양송이밸리의 짚라인은 울창한 숲속에서 580m의 구간을 안전하게 타고 내려오면서 멀리 동해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어 체험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양양송이축제를 앞두고 양양송이밸리에서 열리는 송이채취현장체험과 송이보물찾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연계한 체험시설로 예약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짚라인 양양’은 지



난 송이축제기간에 ‘ZG(ziping guide)를 찾아라’란 이벤트를 열어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추억과 재미를 선사했다.

‘짚라인코리아(주)’가 운영하고 있는 ‘짚라인양양’은 솔향과 송이향이 가득한 태고의 자연 숲 위를 누비며 가슴이 탁 트이는 동해바다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고, 특히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체험장, 야생화원 등 다양한 생태교육장과 연계한 체험코스로 인기만점이다.

■ 짚라인 타고 힐링여행 떠나보자

‘짚라인양양’의 모든 시설은 최초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됐다. 짚라인은 30kg 이상 110kg 미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 체험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짚라인코리아(주)’는 국내 최초로 짚라인 시설을 레포츠로 도입한 짚라인 전문회사로 설계에서부터 시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성 델피노골프앤리조트에 펜듈럼 방식의 짚라인 코스를 개장했다. 현재 전국에 짚라인양양을 비롯해 양구, 고성 델피노, 문경, 용인, 충주, 제주 등 모두 7곳에서 짚라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체험객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두 번째로 이용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약 및 문의 : 1588-5219 /

홈페이지 www.ziplineyangyang.co.kr

결혼이민여성들 전통음식 만들어 전달

다문화 무지개봉사단, 요양원 방문 봉사

우리군의 여성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문화 무지개봉사단'이 음식으로 나눔봉사를 실천해 미담이 되고 있다.

캄보디아 출신의 필섬포아 씨를 비롯한 봉사단 10명은 지난달 30일 양양읍 화일리에 있는 디모테오 꿈마을 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약밥과 깨강정, 수정과를 전달하고 훈훈한 정을 나눴다.

요양원 할머니들은 "집에서도 자주 못해 먹는 귀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와 주니까 너무 고맙다"며



"타국에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이렇게 우리까지 챙겨주는 그 마음 씬씀이가 곱다"고 칭찬했다. 무지개봉사단은 이날 '양양가득

수랏간'이라는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전통음식을 만들었으며, 요양원 청소, 어르신들 말벗 돼 주기 등 봉사활동도 함께 펼쳤다.

지난 4월 양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에 맞춰 꾸려진 다문화 무지개봉사단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현산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지역축제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통·번역 활동에도 나서는 등 양양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무지개봉사단의 리더인 필섬포아 씨는 "우리도 양양군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보람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양양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49민go again양양' 상인인증제 시행

양양시장 상인들 지난 19일부터 조끼 입고 판매

양양전통시장이 최근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49(4일 9일 양양장날을 뜻함) 민go again 양양' 상인인증제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양양시장변영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장날부터 아케이드구간과 시장주차장 등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상인인증제 신청자 중 1차 대상자 120명에게 본인사진이 부착된 '신토불이 49민go again양양' 상인인증제카드와 조끼를 지급하고 판매에 나서도록 했다.

양양시장의 상인인증제를 계기로 전통시장의 이미지 향상은 물



론 공정한 품질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박장수 양양전통시장 변영회장은 "상인인증제를 바탕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무한신뢰를 구축해 양양전통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도록 더욱 노력하

농촌지역 초등학교에 도서 전달

농협 양양군지부, 5개 초교에 800권 기증

농협 양양군지부(지부장 노현화)가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교육도서를 기증했다.

노현화 지부장은 지난 24일 박철수 서광농협조합장과 함께 상평초등학교를 찾아 이상덕 교장에게 161권의 도서를 전달했다.

농협 양양군지부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

악한 농촌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5개 초등학교에 800여권(1천만원 상당)의 책을 기증해 학생들이 양질의 책을 보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현화 지부장은 "앞으로도 농촌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산리선사유적 7천년 전 ‘팥’ 흔적 발견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난 14일 “출토토기서 압흔 확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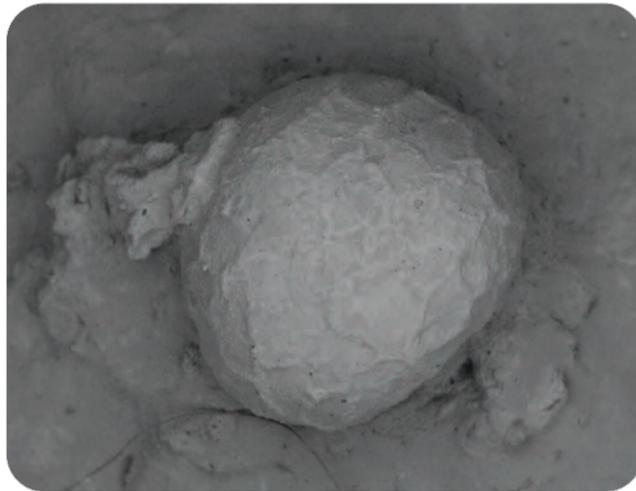
팥 재배 역사 2천년 앞당길 듯
송전리서 해충흔적·잡곡류도 발견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지인 양양 손양면 오산리와 송전리에서 7,000년 전에 재배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팥의 흔적이 발견돼 고고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강순형)는 지난 14일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분석한 결과 7,000년 전의 신석기시대 팥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식물고고학을 통한 선사시대 농경화 연구의 일환으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 소장한 출토 토기의 눌린 흔적(압흔)을 조사하다, 팥에 눌린 것으로 추정되는 두 곳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팥의 눌린 흔적이 발견된 토기 표면의 연대측정을 위해 탄화 유기물을 미국 베타연구소에 측정 의뢰한 결과, 7314년~7189년 전



으로 나왔다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석기 팥의 흔적은 신석기 초기(8000년~6500년)와 중기(5500년~4500년)의 유적 토기에서 1점씩 발견됐으며, 크기는 2.2mm와 2.8mm로 현재의 팥 평균크기인 4~8mm보다는 작다.

현재까지 동북아시아에서 팥을 재배한 시기는 5000년 전이 가장 빠른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번 발견으로 양양 오산리 신석기인들이 2000년 더 이른 시기에 팥을 재배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오산리의 고

고학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신석기 초기부터 중기에 팥이 재배되는 과정에서 야생식물이 인간의 개입으로 형질과 형태가 변화를 일으키는 재배화 경향까지 확인됨으로써 신석기 농경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지역인 손양면 송전리에서 발견된 점토 덩어리에서는 신석기 중기에 해당하는 ‘노린재목’이라는 농업해충의 압흔도 처음으로 확인되는데 이어, 토기에서는 다량의 조와 기장, 들

깨의 압흔도 드러나, 오산리 선사유적지 주변의 고고학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분석결과를 포함한 종합연구보고서와 고고식물자료집을 내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예맥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006년 오산리와 송전리 유적을 발굴조사한 결과, 신석기 시대 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야외노지, 저습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문의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670-2548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전

11월까지 특별징수...재정부담 해소 목표

양양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를 2014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지방세 29억 8천만원(도세 포함), 세외수입 14억 8천만원(일반회계) 등 총 44억 6천만원으로 2013년도 결산 대비 125%에 육박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2014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 또는 장기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직장조회 후 급여압류, 각종 채권(예금) 압류를 할 예정이다.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670-2145

“축하합니다!!”

◆2015년 강원도·중앙부처 공모사업선정 77억원 확보

◆해양수산부

‘바닷속 체험마을 시범사업’ 남애2리 어촌계(사업비 : 1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상평리, 수상리(사업비 : 55억7천만원)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 잔교리, 명지리(사업비 : 8억5천만원)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광정리(사업비 : 3억원)

“불합리한 규제 신고 받습니다”

우리군, 현장 의견 수렴...이달 중 간담회

우리군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군수를 포함한 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서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완화 정책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군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의 적극적인 신고 및 상담을 독려하는 군수의 서한문을 첨부해 관내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기타 자영자 등 50개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 전화상담 및 현장방문을 위한 창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개선방안을 찾고 이를 토대로 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내 업체 및 소상공인들은 경제활동 중 느낀 불합리한 법령이나 관공서 인허가 행태개선 사항, 기

타 규제사항 등에 대해 정비나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화상담 또는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제안서를 작성해 양양군 규제개혁추진단(670-2951)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앞으로 규제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으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매년 규제개혁을 위한 워크숍도 열 예정이다.

김진하 군수는 “규제개혁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지방에서 시급하며 무엇보다 우리군은 주요 관광지에 대한 토지규제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불합리한 현장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조례? 규칙은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8회 노인의 날 행사 성료

노인들 1천여명 참석...실버악단 공연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13일 오전 10시 양양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하 군수와 장석삼 도의원을 비롯해 읍면별 노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악단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또 노인복지증



진에 기여한 양양자원봉사실과 현북면 함종원 씨 등이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으며, 김희열 양양읍 노인회장 등 6명이 양양군수 표창을 받았다.

우리군-경희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군민들 진료비 할인혜택 등 제공



우리군은 지난 13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희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진하 군수와 이충현 경희의료원 교류협력실장은 업무협약을 맺고 양양군민들이 경희의료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더욱 나은 진료서비스 제공과 할인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경희의료원은 군민들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가

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선택진료비 10% 감면(1회 상한 50만원까지)과 기본 검진비 20% 감면 혜택을 준다. 비보험의 경우, 경희대병원에서는 비급여 일부 10%(MRI·초음파·로봇수술), 치과병원 비급여 일부 10%, 한방병원 비급여 일부 15%(한약·침) 등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제품 홍보 · 판매관 설치 요구

우리군 · 포월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우리군은 지난 13일 포월농공단지에서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하 군수와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 현황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입주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현재 많은 업체들이 포월농공단지에 상주해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관내에 안정적인 판로가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군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농공단지 생산 제품의 소비를 권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진하 군수는 “우리군의 심장이나 마찬가지로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기업들의 제안들을 전향적으로 수렴해 경제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월농공단지에는 현재 35개 업체가 상주해 50여가지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양양양수발전소, 일터체험제공 우수기관 인증패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소장 이방훈)는 2014년 10월 14일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일터체험제공 우수기관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양양양수발전소 홍보관(양양

에너지월드)은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정보와 체험코너, 대한민국 최대 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학습정보와 전력생산과 에너지상식을 접할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발전소 직원과의 멘토링을 통해 진로 설계를 할 수 있고, 발전소 일터방문을 통하여 실제업무를 체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운전자가 알아야 할 똑똑한 “비보호좌회전”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직진등화”에 실시해야 하는데 종종 이를 무시하고 적색신호등에 비보호를 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자신이 적색신호에 좌회전한다는 것은 반대 차선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적색등화에서의 비보호좌회전은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녹색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횡단보도로 통행시 갑작스런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놀라고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가급적 삼가야 한다.

비보호좌회전은 신호교차로의 녹색 직진등화에 실시하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똑똑한 비보호좌회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는 바램이다.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안전시설부 (033)250-9142

♥ 양양군 부부학교 1기에 초청합니다 ♥

- △ 일 시 : 2014. 11. 01(토)~11. 22(토) 오후1시~ 5시20분(매주 토요일/4주 진행)
-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
- △ 모집인원 : 30쌍 희망자 (예비 부부가능)
- △ 내용 : 남녀차이, 치유, 부부대화, 부부의 성
- △ 접수 : 해당읍면사무소 및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 △ 교육비 : 무료 △ 기타 : 간식 제공



『2014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운영기간 : 2014.10.1. ~ 2014.10.31.

부정수급이라 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반환·징수 처분은 건전한 고용보험의 운영을 위함입니다.

[부정수급행위 유형]

1. 수급자격신청 관련 허위신고
2.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상용·계약직으로 취업한 날,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 한 날, 사업자등록자 사업개시일, 보험설계사, 기타 자영업 위촉일, 산업재해 휴업급여 수령기간(진폐 정밀진단 포함) 등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임
3. 기타 실업급여 수급관련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급자 처분]

부정수급 적발시 해당 실업인정기간의 지급받은 금액과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 금액, 그리고 지급중지일(허위 신고일)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징수 및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는 배액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문의 : 630-1909

양양군 고시 제2014-12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06일

양 양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번호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m2)		
1	연창지구	양양읍 송암길 13-17	토사사면	C	300	붕괴위험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양양군청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군 건설방재과(방재담당)와 협의하여야 함.

4.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4. 10. 06.

5.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양양군청 건설방재과 ☎ 033-670-2490

2014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1. 목 적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통한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2. 사업대상

- 양양군에 소재한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보관중인 슬레이트 수거 처리

3. 신청기간 : 2014. 11. 10일한

4. 신청장소 : 군청(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 670-2183) 또는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소유자 주소 및 연락처, 주택소재지 지번 등)

6.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국비(50%), 군비(50%)
- 가구당 지원(보조)단가 : 2,880천원(수수료 포함)

※ 지원(보조)금액 이상 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초과비용과 지붕 석우기는 소유자 자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환경관리과(☎ 670-2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자원거래소를 이용한 폐자원 거래 안내

단순 소각, 매립되는 폐자원과 중고물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순환자원거래소』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거래장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거래나 처리업체 알선을 원하는 사업자나 개인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이용대상

- 폐자원 거래나 처리업체 알선을 원하는 사업자나 개인

-이용방법

①인터넷 : 순환자원거래소 홈페이지 www.re.or.kr

②전화: 033-240-9535(담당자 : 한국환경공단 강원출장소 최현진 과장)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전문가파트너 모집안내

□ 소개

치매는 의학뿐만 아니라 간호, 복지, 영양, 행정, 법률, 환경, 정보통신, 경영 등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복합 질환입니다. 전문 파트너들이 기부해 주시는 소중한 재능이 바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광역치매센터에서는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전문가 파트너 신청 절차

1. 기간: 2014년 4월 ~ 12월
2. 신청대상: 의료,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심리, 레크레이션, 인지활동가(음악, 신체, 원예, 미술, 웃음, 댄스), 전통음악, 희극 등 다양한 재주를 가진 전문가로 노인문제 및 치매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3. 신청방법: 자신의 분야를 증빙할 이력 및 자격사본 이메일 접수

4. 문의: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자원연계팀
(☎, 257-9165, gangwon@nid.or.kr)

□ 활동사항

1. 상담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맞는 활동 협의 후 노인요양시설이나 유관기관에서 관련활동을 수행

□ 특전사항

1. 치매관련 교육이수 후 전문가 파트너 등록
2.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전문파트너 위촉장 발급
3.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 및 인증서 발급
4.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공, 우수 전문가 파트너 시상
5. 치매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014. 9. 1 ~ 12. 31

□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 110

□ 신고접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e.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 ① 사무장 병원 수급부정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감사원, 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분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일수는

-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이며,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질환군별 연간 365일입니다.
- 질환군은 166개 희귀난치성질환, 10개 만성 고시질환, 중등등록질환자 그 외 기타질환으로 나누어집니다.

□ 의료급여 연장승인제도는

-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시·군청에 연장승인을 신청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제도입니다.

□ 질환군별 가능한 연장승인 횟수와 일수는

- 166개 희귀난치성질환, 10개 만성 고시질환, 중등등록질환자 : 1회(90일) 총 455일

- 그 외 기타질환: 90일(1회) + 90일(1회) 총 545일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날부터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고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는 질환군별 연장승인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이며, 적용기간은 적용된 때부터 차기년도 말까지입니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 033-670-2190

2014년 9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재활용품 혼합배출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 됩니다.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안내

▶ 일몰 후부터 익일 07시까지만 배출합니다.(금요일부터 일요일 일몰전까지 배출 금지) ◀

구분	쓰레기 종류	배출시간	수거일	배출방법	봉투종류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소각용)	수거일 전일 일몰후부터 수거당일 7시까지	월 수 금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흰색)에 담아 배출	50ℓ, 100ℓ, 200ℓ, 300ℓ, 500ℓ
생활 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소각용) 젖은스티로폼, 벽지, 배개, 인형, 완구류, 카세트테이프	수거일 전일 일몰후부터 수거당일 7시까지	월 수 금	종량제봉투(흰색)에 담아 배출	50ℓ, 100ℓ, 200ℓ, 300ℓ, 500ℓ, 750ℓ, 1000ℓ
재활용품	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비닐류, 스티로폼, 영농폐기물	월요일 일몰후부터 화요일 07시까지	화	종류별로 분리하여 투병 비닐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검정봉투 사용금지
대형 폐기물	현이불, 가전제품, 유모차, 각종가구류, 대형완구, 번기, 욕조, 매트리스, 가방, 거울, 액자, 고무통, 화분, 옥매트 등	월요일 일몰후부터 화요일 07시까지	화	스티커를 읍면사무소에서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수수료 납부 (대형폐기물은 무료배출)
불연성 폐기물	유리, 도자기류, 화분, 티일, 화장품병, 소량의 집수리 잔재물 등 타지 않는 쓰레기	수요일 일몰후부터 목요일 07시까지	목	불연성전용매대 (붉은색)에 담아 배출	200ℓ, 500ℓ, 1000ℓ

우리 집 종량제 봉투 구입 비용?

1년에 2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무단투기로 단속에 적발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봉투 값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 1회용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쓰레기 불법소각, 무단투기,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시 안내 ◀

- ◆ 단속기간: 연중(※ 특별단속기간: 2014. 9. 15 ~ 10. 31일까지)
- ◆ 지역: 양양군 전 지역
- ◆ 단속대상
 -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자
 -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한자
- ◆ 과태료 부과 대상
 -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한 경우: 1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잠깐!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기간 꼭 확인하세요!

-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3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1종 운전면허는 취소
- 도로교통공단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 참조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